

## 201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 일시 : 2019. 4. 19. (금) 14:00 ~ 16:08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참석자 (8명)

위원장 : 000

위 원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배석자 : 000 팀장, 000 주무관, 000 주무관

◆ 심의안건 (총 6건)

- 문화재 지정 검토 사전 심의 : 1건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 : 1건
-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 : 3건
- 발굴조사 결과 보고 : 1건

(개의)

### ○ 000 위원장

2019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건수가 없어서 한 번 쉬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좀 그래도 심의할 건이 몇 가지가 있네요. 두 달 만에 만나니까 다들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 ○ 000 주무관

먼저 문화재 지정검토 사전 심의 건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구천계곡 역사 유적 관련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 000 주무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현재 나누어드린 위원회 자료에 수정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PPT를 중심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 지정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신청은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지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자는 한국산서회라는 단체에서 신청을 해 주셨고요. 대표로 조장빈 개인 명의로 신청해 주신 겁니다.

신청 대상은 주로 강북구 수유동과 우이동에 산재해 있는 역사유적 8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가 2013년부터 문화재 지정 신청에 의해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조사에 나갔는데 1차적으로 위원님을 모시고 나간 조사에서는 추가자료 발굴과 추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락되었다가 최근 3월 26일 위원 세 분과 함께 현장을 나가서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던 건입니다.

8기에 해당하는 역사 유적이 어떠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표기해 봤습니다. 말씀드린 수유동계곡 쪽에 6기에 해당하는 역사 유적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계곡 상부에 현재 폐사지로 분류되어 있는 건물지가 하나 문화재 지정 신청이 들어왔고 이 외에는 도선사가 있는 우이동계곡에 각자 하나와 보광사가 있는 계곡의 궁금장 각자 총 이렇게 8기가 문화재 지정 신청이 들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수유동계곡 유적의 분포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국유지에 해당하는 일명 구천계곡의 일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기 PPT 상으로는 왼쪽에서부터 계곡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렇게 쪽 계곡을 따라서 현재 여기에 폭포가 하나 형성되어 있는 곳이 해당 구역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보시면 맨 상단에 구천은폭 각자가 폭포 바위 사면에 형성되어 있고요. 순서대로 송계별업이라는 각자와 또 사릉과 관련된 각자들이 계곡을 따라서 남북으로 산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 워낙 다양하게 역사 유적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현장조사와 사전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격으로 저희가 분류한 것은 먼저 송계별업 관련된 유적입니다. 수유동계곡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천은폭 각자, 송계별업 각자 그리고 계곡의 남쪽에 있는 현재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지가 이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먼저 송계별업은 북한산 수유동계곡에 자리했던 인평대군의 별서입니다. 1646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인평대군은 인조의 셋째 아들이고 특히 1650년부터 청나라에 네 차례에 걸쳐서

사은사로 다녀와서 왕실의 정권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인평대군이 조성한 송계별업은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구천폭포 일대에 보허각과 비홍교, 영휴당 등의 건물로 송계별업을 구성했다는 것이 문헌을 통해서 밝혀졌습지만, 현재로서는 모두 멸실돼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관련 유적으로는 바위 글씨가 2기가 있는데요. 구천은폭이라는 폭포 상단에 새겨져 있는 글씨와 그리고 그 좌측에 있는 송계별업이라는 바위 글씨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 여드린 대로 계곡 남측에 건물지 하나가 영휴당 터로 추정되는 건물지 하나가 관련된 유적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현재 송계별업은 1699년 사릉의 석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먼저 구천은폭 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되어 있는 '이신서'라는 글씨가 글씨를 쓴 사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신이라는 사람을 문헌에서 찾아본 결과 이규보의 11대손이나 생졸년은 알 수가 없고 다만 1655년 인평대군과 함께 청나라에 갔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서예에 상당히 능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만, 현존하는 그의 친필 작품이 없어서 이 바위 글씨와 비교해 볼 만한 작품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송시열의 계축일기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그 일기에 이 구천은폭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1668년 이전에 각자가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송계별업 각자입니다. 위치상으로 보시면 구천은폭이라는 글씨가 있고 바로 이 왼쪽 남측 바위 사면에 각자가 되어 있습니다. 송계별업 각자는 작자미상이고 허목의 갑인기행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적어도 1674년 이전에는 이 각자가 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계별업과 관련된 유적은 현재 배드민턴장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지입니다. 신청자께서는 이것이 인평대군의 별업과 관련된 건물지일 것이라고 해서 신청을 해 주셨는데 현재 현장의 모습은 이렇게 배드민턴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곳곳에 이런 장대석들이 몇 기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사릉부석소와 관련된 유적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릉부석감역필기라는 각자인데 계곡 상으로는 바로 송계별업 각자 아래쪽의 바위 석벽에 새겨져 있는 현황입니다. 단종이 복위된 이후에 1699년 정순왕후의 사릉을 조성하는 과정을 바위에 각자를 한 형태입니

다.

현재 사릉은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에 소재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역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석벽의 사면에 음각으로 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릉부석소와 관련된 나머지 유적들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서 계곡 입구에 있는 금표 각자와 부석금표 각자도 바로 사릉을 채취했던 채석장과 관련된 유적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즉, 계곡 입구에서 여기가 왕실과 관련된 채석장이므로 '입장이나 채석을 금지한다.'는 의미의 금표 각자를 계곡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설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금표 각자는 자연석에 음각을 한 상태이고 작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석금표 각자도 자연석에 음각을 해놓았는데 아마도 일반인의 석재 채취를 금하기 위한 그런 표시로 이해됩니다.

세 번째로 나머지 두 가지 역사적 배경과 묶을 수 없는 것들은 기타로 넣어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 살펴본 수유동계곡과 별개로 폐사지 그리고 우이동계곡에 있는 궁금장 각자와 궁시장금 각자를 나머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폐사지는 건물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께서는 여기에 조선시대 조계사 터가 문헌상 존재했고 인근에 이런 건물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계사 터로 추정하고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2015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 터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했는데 노출된 유물이 많지 않고 몇몇 청자편과 도기편들이 수습되었지만 이 부분에 어떠한 사찰이 있었는지, 그 사찰명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느 시기의 건물지인지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궁금장 각자입니다. 위치는 수유동계곡보다 북쪽 보광사라는 사찰 옆에 위치한 등산로에 있는 바위에 음각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상당히 마모가 되어서 알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궁시장금이라는 각자입니다. 보셨던 수유동계곡보다 북쪽에 있는 우이동계곡에 소재하고 있고요. 도선사로 올라가는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불임바위라는 곳에서 바라보이는 계곡의 자연석에 음각으로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현장에서 000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결과는 궁의 떨감이나 채취 장소이니 출입이나 다른 채취를 금한다는 의미의 각자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문화재의 지정 가치나 역사적 배

경은 000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금 인평대군의 별장을 운영했던 곳인데 여기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거의 인평대군이 사패를 받았던 땅으로 추정은 할 수 있는데요. ‘궁’자가 다 인평대군과 관련되어 있는 글자로 추정됩니다. 송계별업이라는 각자를 세우고 했던 것은 허목이라든가 송시열이라든가 성호 이익의 문집에서 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한 연원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인평대군의 아들 세 사람이 다 남인들하고 어울리다가 1680년 경신환국 때 다 처형이 되면서 이터 일대가 훼손이 되기 시작해서 이전부터 이 일대에서 아마 석물 채취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능 석물을 여기서 채취하게 되면서 더 대규모로 파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릉만 되어 있는데 휘릉도 여기서 한 번, 왕릉에 두 번에 걸쳐서 석물을 채취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계곡인데 사진 상으로는 눈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게 다 화강암을 깬 돌들이 다 채워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릉부석감역필기가 발견된 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왕릉을 세계유산으로 했는데 왕릉 석물의 채석장을 현재는 추정지, 의궤 상으로 어디에서 했다는 것은 알지만 여기다라고 꼭 집어서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여태까지 없었는데 여기에서 그것이 발견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사릉이라든가 다른 능에서 석물의 보강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정확한 위치에서 찾아서 보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부석감역필기에 있는 앞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의궤 기록과 딱 일치하는데 의궤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있으나 네 사람만 기록된 것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들을 여기에 기록했던 것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와 학술적인 가치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정신청을 한 것은 송계별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송계별업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명승에 해당되는 기념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건데 현재의 상황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송계별업으로 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릉 부석한 장소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나서 그 설명문에는 이 송계별업 터가 훼손되는 과정을 언급해줌으로써 동시에 역사성을 드러

내주는 그런 것을 작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송계별업은 계곡에 있기 때문에 이 계곡만이 아니라 원래는 별업이기 때문에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시냇가에는 없었고 정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주변에 있었을 것이고 사람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건물지는 아마 여기가 가장 유력해서 여기를 애기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절도 있고 하지만 별업이라 하면 정자 외에 본체에 해당되는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건물을 추정을 하게 되면 이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계곡을 중심으로 하고, 주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별도로 같이 묶어서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000 위원

송계별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받았던 논문 가운데 송계별업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별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고 있는 본제에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거리되는 곳에 별업이라든가 별서를 많이 짓게 돼요. 그런데 그분의 집이 원래 낙산 아래쪽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랑 여기를 따지면 거리가 한 30분 정도 걸어서 그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 같고. 배드민턴장이라고 한 이 부분이 아마 영휴당이라고 하는 거거 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이 이후에는 조계사라든가 이렇게 변했다고 한 말은 있는데 그것은 학술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 같고 배드민턴장이라고 하는 이 뒷부분인가를 보면 약수터 장소가 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문헌상에 보면 영비천이라는 샘이 있었다고 문헌집에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를 영휴당이라고 한다면 구천은폭이라든가 송계별업 각자 부분 그리고 구천은폭 밑에 여기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보허각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 논문에 보면 정자의 다리를 박았던 표시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 000 위원

그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 000 위원

예. 그것처럼 보인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따지면 이전에 문헌 상에 나오는 것들은 여기에 그러한 답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담이라는 것, 창벽이라

는 그런 바위를 지칭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송계별업이 먼저이고 이후에 여기 부석을 한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송계별업 부분도 조사를 하시면서 한 번 더 엮어보고 일단은 건축물들은 없지만 그래도 전통 경관에서 보면 저런 전체적인 장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물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지만 영휴당이 있었다는 배드민턴장이 부분하고 뒤쪽에 있는 약수터 부분도 한 번은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그런 근거가 없다면 여기로 가는 것이지만 송계별업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그 부분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별업의 가장 좋은 경관이 여기인데요. 별업 글자도 여기 있고. 그런데 양쪽의 단애면 절벽은 부석 과정에서 다 채취해서 원래 정자가 있을 터에 그 터가 없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터를 찾을 수는 없는 거죠. 바로 붙여서 단애면에 가까이 정자를 지었을 텐데 그게 부석 과정에서 다 깨져 나간 겁니다. 그 터가 양쪽으로 잘려 나갔으니까.

○ 000 위원

완전히 터의 위치를 찾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남아 있는 유적 찾기는 힘들 텐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한담이라고 하는 것은 움푹하게 파여서 물이 담겨 있는 약간 폭포 밑에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위치상 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000 위원

부석 과정에서 쓸모없는 돌들이 다 계곡을 채웠거든요. 그래서 담도 사실 안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원형으로 다시 끄집어내서 복원을 시도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 000 위원

복원까지는 힘든 것 같고 장소 선정만이라도 입증할 수 있으면...

○ 000 위원

저 배드민턴장에서 송계별업 각자가 있는 데까지는 굉장히 먼가요?

○ 000 위원

은푼까지 50m 정도인데,

○ 000 위원

걸어서 2~3분이면 가는 곳이에요.

○ 000 위원

예. 그런데 보여요. 저 위치에서 저 은푼이 보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 000 위원

그것은 절터 폐사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명확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인평대군 관련된 건물이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000 위원

맞아요. 논문상에는 영휴당 터였는데 그게 나중에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절터로 바뀌었다. 이런 말들은 나와요.

○ 000 위원

그러면 제목을 인평대군 관련해서.

○ 000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고증이 확실히 되지는 않았습시다. 제가 논문도 읽었는데요.

○ 000 위원

예. 확실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보니까 그런 느낌이 와서요.

○ 000 위원

조계사라는 절터는 아까 폐사지라고 하는 이 부분도 있고 아까 궁금장 각자라고 하는 부분에도 보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 거고요. 절터는 주변에

많이 있는데 지표 조사 과정에서 절터면 건물지가 집중해서 여러 개가 같이 모여 있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건물 하나 정도.

○ 000 위원

암자 정도 하나 건물이 있었을 듯한데.

○ 000 위원

그래서 조그마한 암자라면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묵거나 하기에는 좀 너무나 작은 곳이기 때문에 건물이 여러 채는 있어야 할 텐데요. 그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장이 큰 사찰 이름을 가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사찰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그마한 암자 하나, 연주대 같은 그런 정도의 크기는 충분히 있을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 000 위원

인평대군 쪽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래서 혹시 저희한테 보여줬던 그 논문의 마지막 장을 보면 전체 장소성에 대해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이 제목이 구천은폭을 비롯한 신청 대상 1~4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돼 있네요, 우선. 구천은폭부터 폐사지까지 네 가지하고 그다음에 금표 각자와 부석감역필기하고 궁시장금, 궁금장. 그러니까 신청 대상을 여기서는 네 가지를 우선 해놓았고.

○ 000 위원

네 가지로 했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해놓아서요.

○ 000 위원장

제가 이거를 보니까 2013년부터 해서 네 차례나 조사를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아직 충분히 조사가 안 됐다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부결이 됐던 모양이죠?

○ 000 위원

그렇죠. 2005년도에 나왔던 그 자료를 확실하게 구할 수 없었다는 부분하고 이 논문은 2018년 12월에 나온 거예요. 거기 보면 뒤에 문헌에 나오는 그러한 경관 관련된 단어들이 이 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같이 합쳐서 한 번 더 찾아보면...

○ 000 위원장

일단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조사나 조사위원들의 결과는 대체로 문화재 지정하는 가치가 있음으로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이거를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2016년에 문화재위원회 현장조사 1차에서는 ○○○ 위원하고 ○○○ 위원이 했는데 그때는 뭔가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것이 그럼 2018년 논문에서 반영이 된 모양이죠?

○ 000 위원

안 돼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 자료 발굴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이번에 신청했을 때는 자료가 더 첨가가 됐나요? 그거는 아니고?

○ 000 위원

아마 이번 신청은 별업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해서 아마 답사를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 000 위원

1차 가셨던 분들하고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나간 것 같고요.

○ 000 위원장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것 같다?

○ 000 위원

네. 가서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논문도 다시 더 검토를 해 보니까 논문에서 쓰인 내용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더 많이 확인이 돼서 제가 보고서를 쓸 때 여러 개를 가장 크게 묶을 수 있는 건 사릉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송계별업으로 하면 사람들이 문화재 지정이 됐는데 별업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문화재로 했을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것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별개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저 지역은 역사적으로 두 단계, 두 층의 역사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계별업 시대는 남은 유적이 별로 없어서 문제지만 그것이 엄연히 존재했고, 그다음에 송계별업이 관리가 안 되고 난 다음에 부석감역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는 금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역사적인 두 층이 나오거든요.

○ 000 위원

그렇습니다. 송계별업이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이기 때문에.

○ 000 위원장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연결은 되죠, 역사적으로. 연결은 되지만 층위는 두 층이에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토론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온 장소를 다 포함할 것인지, 그중에서 혹시 조사나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를 제외하고 일부만 할 것인지 그런 두 가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000 위원

그러면 문화재 명칭을 뭐로 할 것인가.

○ 000 위원장

문화재 명칭은 조금 전 첫 번째 말한 그것과 관련되죠.

○ 000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묶을 것이냐, 아니면 둘이나 세 개로 나눠서 쪼갤 것이냐.

○ 000 위원장

그렇죠. 그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러니까 구천은폭이라는 각자하고 송계별업 각자는 송계별업에 관련된 거지 부석금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걸 한 번에 다 묶기에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하나로 묶기가 어렵죠, 장소가 같아서.

○ 000 위원

장소가 같으니까 묶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계별업은 지금 훼손된 상태고 권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는데, 명칭이 만약에 사릉 부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사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스토리가 앞의 것까지 이야기를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릉 부석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또 별업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그냥 송계별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이치에 맞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역시 ○○○ 위원님 의견과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 000 위원

저는 조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000 위원장  
말씀하세요.

○ 000 위원  
사릉 조성 과정에서.

○ 000 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릉이 너무 부각되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 000 위원  
아니, 사릉 조성 과정에서 그때 석물 채취는 아주 조금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추가로 거기에, 제 기억에는 석물을 다 그때 한 것이 아니고 원래 무덤이 조성돼 있었고 능으로 추봉하면서 제 기억에는 장명등하고 혼유석 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아요. 더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원래 있는 것을 추봉하면서 집어넣은 정도. 석물 크기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계곡을 훼손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검토라고 생각이 되고요.

○ 000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또 다른 능도 계속해서 거기서 갖다 썼다고 하니까.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건가요? 사릉의 석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갖다 쓰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석물들을 계속 썼나?

○ 000 위원  
여러 차례 썼습니다.

○ 000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휘릉도 썼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릉을 포함한 능 석물을 분석했던 곳, 이런 식으로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가지 완전히 사릉 석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훼손한, 이런 식으로 한

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봉산 가오리라는 곳은 어디예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순종릉 만들 때도 도봉산 가오리에서 화강암을 부출해서 석물을 만든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이곳이 화강암이 떼어져 나오는 것은 사릉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니까 화강암 자체가 석물을 하기에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깨끗한 것이고 보면 흙이 별로 없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많은 능을 만들 때 여기서 화강암을 부출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사릉만 강조하지 말고 사릉을 포함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한 다음에 넓게 잡아가지 사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훼손된 것처럼 하는 것은 조금 역사를...

○ 000 위원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여기서가 아니라 조금 학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만 했다가, 성격이나 명칭이나 범위나 이런 건 여기서 하기는 조금.

○ 000 위원장  
여기서 정하기는 조금 어렵죠.

○ 000 위원  
명승으로 갈 수도 있고 별업으로 갈 수도 있고.

○ 000 위원  
왜냐하면 별업 같은 경우도 왕가에서 만든 별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왕가에서 만든 별업이라서 별업이나 별서는 권세가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따진다면 저것 같은 경우는 별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이후에 여기가 어떠한 안 좋은 장소기 때문에 바위를 들어냈다 이런 역사적인 것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 000 위원

이렇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따로 한 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000 팀장

명승 관련해서는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이 일대를 명승 관련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용역도 했는데 명승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 수준에서 더 학술조사를 진행한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이후 더 보강된 자료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 문화재청에서도 천연기념물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궁릉 본부 쪽에서 사실은 관심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이 있어서 어디서 채취했을 거라는 이야기는 다 있는데 정확하게 이 장소라고 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기록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궁릉 본부나 사릉 관련된 그쪽 과에서는 이것 좀 문화재로서, 사적으로서 의미를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사적이 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은 일단 서울시 기념물이라도 왕릉 석물을 채취했던 곳을 처음 발견해서.

○ 000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크게 잡아가지, 사릉만 하기에는... 사릉으로 확증이 되는 거죠.

○ 000 팀장

부역기에는 사릉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 그걸 좀 부각시키면 어떨나 하는.

○ 000 위원

왕릉 채취장은 전국에 수십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만 왕릉 나왔다고 해서 전체 왕릉을 여기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야기를 쓸 수는 없는 거고.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전국에 많은 채취장이 있고 많이 했는데 여기는 이런 각석이, 각자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확실하게

여기서 뭘 했다는 것. 돌을 많이 캐긴 적게 캐긴 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죠.

○ 000 위원

그런데 사릉 채석장, 이렇게 했을 때는 정순왕후가 돌아가셔서 저렇게 만든 시기하고 속종 때 추봉한 시기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두 시기가 하나로.

○ 000 위원

정순왕후가 돌아가셨을 때는 능이 아니라 그냥 묘예요. 묘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묘입니다. 전혀 저렇게 만든 게 아니죠. 속종 추봉하면서 저렇게 된 거죠.

○ 000 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송계별업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시작은. 그러니까 000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송계별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정치사의 일면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000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자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미묘하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안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뭐라 하는 게 좋겠다는 안.

○ 000 위원

가치는 인정되는데요. 서울시 기념물로서의 가치는 인정된다.

○ 000 팀장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사릉 채석장을 중한 가치라고 인정해서 기념물로 지정코자 하는데 나머지 송계별업이라든지 구천은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재 자료로 따로 지정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따로 별건으로, 두 건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렇죠. 이거를 전부 다, 물론 한 범위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로 묶어서 하



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000 위원
  -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궁금장하고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집어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 000 위원장
  - 그렇죠. 그 문제도 있고. 그런데 금표 각자, 아까 궁시장금 있죠? 그런 것이 여기 말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나와 있는 걸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문화재 자료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궁금장 각자나 궁시장금 각자.
- 000 위원
  - 그런데 역사성을 밝힐 수는 없는 상태니까.
- 000 위원장
  - 없으니까. 언제 했는지.
- 000 위원
  - 인평대군의 궁금장으로 짐작은 되지만 확실하게 여기까지가 인평대군 땅이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궁금장 각자와 궁시장금 이것은, 특히 궁시장금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보존은 될 것 같고요.
- 000 위원장
  - 그러니까 여기서 구천은폭과 송계별업이 한 묶음이 되고 그다음에 사릉부석감역필기가 하나 되고 그다음에 궁시장금하고 궁금장 각자가 또 하나의 별건이 되는 것 같아요.
- 000 위원
  - 예. 밀의 세 개하고 위의 두 개, 밀의 하나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은 어디로 가나.

- 000 위원장
  - 송계별업으로 가야죠.
- 000 팀장
  - 문화재 자료를 일단 해서 발굴조사를 나중에 해보고 확실한 유적이 나오면 기념물로 한다든지.
- 000 위원
  - 거기는 지금도 샘이 솟고 있더라고요. 약수터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구천은폭 같은 경우는 책을 보면, 그 이전 문헌에 거의 중국에 있는 여산폭포하고 거의 같이 맞먹는다고 많이 비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전의 학자들도 조선 문집에 그런 말들을 몇 번씩 인용해서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 000 주무관
  -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 세 건의 바위 글씨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필운대 같은 경우도 있고 삼청동문 같은 경우도 있는데 결국 바위글씨라는 것은 그 주변의 지역성을 기념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그 주변의 권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바위 글씨만의 가치를 부여해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고 있는 현황이라 송계별업에 가치를 뒀서 만약에 글씨를 지정하신다면 송계별업 각자와 구천은폭 각자도 기존에 바위 글씨가 지정된 사례에 비추어서 가능하고요. 다만 궁시장금 각자와 궁금장 각자, 그 외의 각자들은 기존에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작자미상이기는 하지만 격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000 위원
  - 부석 금표 각자하고 금표 각자는 사릉 부석과 관련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바깥에 저 위에 있던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저 그림으로 보면 구천은폭하고 송계별업 각자는 조금 전에 필운대처럼 그것의 예에 비추어서 그런 식의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사릉부석감역필기 각자와 금표, 부석 금표, 그것은 또 한 묶음이 되고. 그러면 배드민턴장은, 다시 그건 조사를 한 다음에.

○ 000 위원

송계별업하고 같이 연결된 거예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송계별업에 연결되지만 그래도 조사를 한 다음에 뭘.

○ 000 위원

송계별업의 건물지로 추정돼서.

○ 000 위원

추정만 가지고 하기는...

○ 000 위원

거기에 유물이 있으니까요.

○ 000 위원장

마지막에 궁시장금하고 궁금장 각자, 그거는 또 하나의 별개고. 그렇게 되지 않나?

○ 000 위원

그런데 그 배드민턴장을 앞으로 발굴하실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 000 팀장

발굴을 해야죠.

○ 000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송계별업 건물은 배드민턴장 발굴한 다음에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시고 이번에는 그냥 사릉하고 금표.

○ 000 팀장

발굴을 하려면 문화재로 돼 있어야 발굴이 가능한 상황이라, 그래서 일단.

○ 000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 000 위원

지금 저 사릉감역필기랑 부석 금표, 금표 각자 이것은 그냥 그거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영역을 말해야 하고.

○ 000 팀장

그 일대를 다 하고 포함을.

○ 000 위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자료는 만들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지금 계곡이, 폭포에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갔을 때도 계곡을 끼고 좌우 10m씩 하게 되면 영역도 같이 포함되는.

○ 000 주무관

결국 문화재 지정 명칭과 지정 구역에 해당하는 결정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1차적으로 측량을 해본 결과는 여기가 계곡의 입구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부위가 구천은폭 바위 글씨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송계별업 사릉부석감역필기가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여기가 말씀드린 영휴당 터로 추정되는 곳이고요. 그 외의 계곡 입구에 해당하는 금표 2기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게 개인 사유지라서 상당히, 나머지는 모두 산림청 소속의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국유지인데 이 일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문화재 지정 구역으로 설정할 때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하겠죠. 지금 이야기한 것은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 000 주무관  
네. 문화재 구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 000 위원장  
문화재 구역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야 하죠.
- 000 위원  
그래서 사릉 관련한 것은 기념물로 하시고 구천은폭과 송계별업은 문화재 자료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000 위원  
문화재 자료로 하더라도 뒤에 발굴할 수 있는 건가요?
- 000 팀장  
네, 가능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문화재 자료 또는 기념물 했을 때도 지금 빨간 라인은 그러면 번호가 되나요? 지정 구역으로 되나요?  
기념물 문화재 자료도 지정 구역으로 그렇게 해서.
- 000 위원  
그러면 저기도 영휴당인가, 그 부분도 표시가 같이 되어야 하는 거죠?
- 000 주무관  
여기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의결해 주시면 추가로 가능한 거구요.

- 000 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송계별업 관련해서 배드민턴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000 위원  
네, 맞아요.
- 000 위원  
당연히 추가로 포함해야죠.
- 000 위원장  
추가로 포함해야 하고 그다음에.
- 000 위원  
포함하시면서 뒤편에 있는 약수터까지. 약수터는 약간 언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다 같이 확인해 보시고.
- 000 위원장  
폐사지는 이번에 안 들어가죠? 여기 아까 정리해 주신 것에서, 그럼 이 표로 보면. 1번 송계별업 관련에는 구천은폭과 송계별업과 배드민턴장이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릉 부석 관련으로는 감역필기와 부석 금표와 금표 그 세 가지가 들어가나요, 지금 여기 정리한 대로?
- 000 주무관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빠져 있는데.
- 000 위원장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이 기타에 가 있는데 그게 1번 송계별업 관련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기타 폐사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어떨까요? 아직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궁금장과 궁시장금, 이것은 아까.

- 000 위원  
그것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 데도 조금 섭섭하지 않을까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다른 글씨들하고 형평성에서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글씨가 좋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관련 자료가 나오면 그때 지정해도 될 것 같아요.
- 000 위원  
뒤로 미루고.
- 000 위원장  
미룬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범위는 결정했어요, 두 가지로. 그러면 명칭을 아까 위에서 하나는, 송계별업 관련은 문화재 자료.
- 000 위원  
송계별업 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터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커야 할 것 같은데.
- 000 위원  
왜냐하면 별업이라는 자체는 터라기보다는 장소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원, 외원 다 포함해서.
- 000 위원장  
별업 하면 벌써 바운더리.

- 000 위원  
그런데 별업이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별업인 거지.
- 000 위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흔적이 있다는 거라서.
- 000 위원장  
별업은 없고 별업 각자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정할 수 있는 게 배드민턴장에 뭐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정도니까.
- 000 위원  
그러니까 터라는 표현을 써서 과거에 있었다는.
- 000 위원  
저희가 말할 때 별업이나 별서라고 하는 거는 건물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000 위원장  
정원, 땅을 가지고, 범위를 말하는 거니까.
- 000 위원  
저기 보면 구천폭포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경관 요소이기 때문에 별업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 000 위원장  
송계별업, 터라는 말은 조금 안 어울려요. 별업 터?
- 000 위원  
시민들이 “이게 뭐지?” 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송계별업 터가 있고 관련돼 있는 부속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요? 별업, 이렇게 하면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

금 있지는 않잖아요. 지죠, 지고 그 주변의 시설들이고 이런 거니까 지가 더 가능해 보이는데.

- 000 위원장  
옛날식으로 하면 송계별업 구지, 이렇게. 한자식으로 말하면.
- 000 위원  
요즘 시대에 맞춰서 터로 해야지.
- 000 위원장  
그렇지, 터로 해야 하잖아요.
- 000 위원  
터가 들어가는 게 나올 것 같네요.
- 000 위원장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송계별업 터. 주제는 송계별업이 되기는 되어야 하겠고 별장은 더 이상하고.
- 000 위원  
그런데 별업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 000 위원장  
그렇죠. 사실 별업이라는 거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 000 위원  
그리고 구천은폭은 그 밑에 가서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글씨가. 그런데 송계별업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자리에 있어요.
- 000 위원  
이번에는 그냥 송계별업 관련 각자로 가버리고 배드민턴장을 발굴하고 나서 거기서 건물지까지 나오면 송계별업 각자 및 건물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지금은 잠정적인 게, 배드민턴장 발굴하면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 000 위원  
발굴하려면 지정이 되어야 하나니까요.
- 000 위원  
지정하는데 지금 당장 확실한 건 각자 두 개잖아요, 구천은폭하고 송계별업 두 개.
- 000 위원  
폭포는 지금도 그냥 살아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하나의 경관 요소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 000 위원  
그런데 명승, 이 부분은 아니죠. 그거로 되지는 않고 우리한테는 각자로 온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면 송계별업 관련 각자로 일단은 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나중에 바꾸는 건, 명칭은 조금 뒤에 바꿀 수 있잖아요. 발굴하고 나서도.
- 000 팀장  
그런데 많은 예산이, 안내판도 다 들어섰을 거고.
- 000 위원  
그럼 별업 터로 가는 게 조금은 현실성 있는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게 안전하겠네요.
- 000 위원장  
그런데 보이는 것은 구천은폭이잖아요, 그렇죠?
- 000 위원  
지역이니까.

- 000 팀장  
각자는 나중에 촬영을 해서 시민들이 자세히 볼 수 있게 지도까지 해서 옆에 놔두는 방법, 사진 자료로 해서.
- 000 위원장  
송계별업 터 해놓고 거기에 은푼이니 뭐니 해놓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송계별업 터. 은푼하고 송계별업 각자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까지 하면 되고. 그다음에 사릉부석감역필기, 거기는 또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 000 위원  
저희는 조사 보고서에 사릉 석물 채석장 터라고 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을 그대로 쓰면 괜찮을까요?
- 000 위원  
사릉만 써요, 아니면 왕릉 채석장 같이 써요?
- 000 위원  
글자가 명확하게 사릉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는.
- 000 위원장  
그거는 우리 000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릉만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릉이 나오니까 그냥 사릉석물 채석장 터.
- 000 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례들하고도 맞춰봐야 할 텐데, 어떻게 돼 있는지.
- 000 위원  
지금 처음 나온 사항이에요.
- 000 위원

처음이에요? 이게 앞으로 선례가 되겠네요.

- 000 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감역필기하고 부석금표와 금표까지 합니까? 세 가지.
- 000 팀장  
그러면 지정구역은 사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전부 지정하는 거로.
- 000 위원장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 사유지가 필요하다면 사들이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 000 위원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근접성은 쉬워요? 보통 사람들이 갈 때 접근하기가?
- 000 위원  
네. 크리스천 아카데미 바로 옆길로 올라오시면 돼요.
- 000 위원장  
사실 지난번에 많은 위원들이 가셨으면 했는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못 가서 다른 분들이, 사실 가보고 싶었는데 이래서 사실은 못 갔습니다.
- 000 위원  
바위가 만만치 않아요. 완전히 화강암 바위로 쪽 되어 있어서.
- 000 위원장  
제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양을 했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격은 송계별업 터는 문화재 자료로 그다음에 사릉 석물은 기념물로. 이것을 여기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까는 우리가 안을 내자

했는데 그냥 일단 정해서 여기에 대한 또 공격을 받으면 그때 가서 또. 무슨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그때 가서.

○ 000 팀장

정하시면 저희가 30일간 예고하고 그다음에 의견 들어오면 다시 최종 심의하는 것으로.

○ 000 위원장

어떻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공시장금과 공금장과 폐사지는 이번에는 제외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 000 팀장

순서를 바꿔서 도봉서원 발굴조사 보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느 쪽이에요? 손병희예요, 아니면 도봉서원?

○ 000 팀장

손병희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도봉서원 발굴조사.

○ 000 위원장

손병희 묘소부터 합니까?

○ 000 팀장

네.

○ 000 주무관

다음은 저번 회의 때 현상 변경 허가 관련 심의를 하셨던 건인데요. 서울 손병희 묘소 현상 변경 관련 발표하시겠습니다.

(강북구청 등 관계자 입장)

○ 강북구청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건은 서울 손병희 묘소 보수정비 공사 건이고요. 손병희 선생님 묘소는 강북구 우이동 산28-1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총 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사 내용으로는 문화재 보호펜스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전체 265m 중에 올해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는 84m 정도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1.2m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손병희 선생님 묘소 입구 쪽, 출입문 올라가는 계단 쪽에 출입문을 1개소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수목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공사의 미보수 구간이 180m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를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설계업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재 설계자

일단 앞에는 설명해 주신 대로이고 이게 이번 금액에 해당하는 6,500만 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돼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자문의견서까지 저희가 첨부했고요. 나머지는 현황에 대한 사진들이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 입구 쪽부터 84m만 해체를 한 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가시철망 사진이고 이번에 설치되는 능형철망으로 해서 높이는 1.2m 정도로 해서 색상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참조해서 갈색 계통으로 도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000 위원장

지난번에도 하셨다가 애를 쓰셨는데. 질문 있으면 하시죠.

○ 000 위원

이 자료집에만 나오고 거기는 안 보이는데 15페이지에 보니까 보기 좋게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멧돼지의 이동 동선하고 피해를 입힌 부분까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지금 이동 동선이 빨간색이잖아요. 멧돼지가 이동하는 동선이. 그런데 지금 이동하는 동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서쪽

부분의 펜스가 시급한 것 아닌가요? 지금 동쪽에 파란 줄 쪽은 멧돼지가 이동하는 동선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오히려 동선을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파란 줄 부분을 먼저 해버리면 이동 동선을 전혀 막지 못하고 묘소까지 직접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재 설계자

지금 이쪽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지금 돼 있고요, 그 밑 부분은. 이쪽이 지금 손병희 묘소 주변으로 쳐져 있는 데라서 밑 부분은 딱히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같이 해서는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빨간 줄이 이동 동선이고 빨간 점들이 피해 본 지역인데.

○ 강북구청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은 벽으로 돼 있고요. 여기까지도 지금 철조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올라가는 계단 쪽인데요. 계단에서부터 이쪽이 철조망들이 없는 구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이동 동선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파란 줄 쪽으로 뚫고 들어갔다고.

○ 강북구청

일단 저희가 확인한 쪽은 이쪽이 주 멧돼지 출입로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 끊어진 구간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요.

○ 000 위원

그러니까 파란 줄 쪽을 보완하더라도 벽을 타고 빨간 이동선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나요?

○ 강북구청

여기에 출입구 문을 달 거고요. 그다음에 문에 이어서 쪽 철조망을.

○ 000 위원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주된 이동 동선을 막았다고 하셨으면 의문이 풀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렇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쪽은 멧돼지 이동하고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 000 위원

빨가니까 더 시급해 보여요.

○ 000 위원

빨간 동선은 막는다고 하니까.

○ 000 위원장

그쪽을 막으니까.

○ 000 위원

멧돼지가 계단을 잘 타나 봐요. 그러니까 계단 길로만 올라가지.

○ 000 위원

아니죠. 계단이 아니고 거기 열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 000 위원

저기는 다 계단인데요.

○ 000 위원

계단이 약간 열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 000 위원

굳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 000 위원  
계단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입구에 뚫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타고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 문화재 설계자  
옆으로 해서 지금.
- 000 위원장  
마지막 19페이지가 보수 펜스 상세도인데 그거 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6m 중에서 보수 펜스는 1.2m이니까 조금 낮춘 셈이죠? 지난번에 1.5m 했다가 저희가 높다고 해서.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 000 위원  
멧돼지가 못 파게 밑을 보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000 위원  
앞에 입구 부분을 튼튼하게 하셔야지.
- 000 위원  
틈은 아니고 저기 같은 경우는 바닥 밑에 기초 부분 심은 거라서, 공간이 아니고.
- 000 위원장  
그러니까 GL이라는 게 그 라인이니까.
- 000 위원  
GL은 그라운드 레벨일 거고 그 윗부분이 막혀 있다, 이거죠?
- 문화재 설계자  
여기까지가 GL이고요. 이만큼만 지금 떠 있는 겁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 000 위원장  
그 정도로는 멧돼지가 못 들어가지. 너무 얇아서. 쥐는 들어갈 수 있어도.
- 000 위원  
멧돼지는 땅을 안 파나요? 파고 들어가잖아요.
- 000 위원장  
아, 파고 들어간다. 그 점은 어떻게 하죠? 그게 땅 밑으로까지 그러면 가야 하나?
- 문화재 설계자  
그게 현재 7cm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 000 위원장  
7cm도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더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가요?
- 000 위원장  
그렇죠. 지금 84m밖에 안 하니까.
- 000 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한 번 보여줘 보세요, 원래 하신다고 했던 전체.
- 문화재 설계자  
이 부분이요?
- 000 위원

아니요, 전체. 이번에 하시고 앞으로 어느 부분을 더.

○ 000 위원장

더 길어요,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그렇죠?

○ 문화재 설계자

이번에 해야 할 부분이 여기 처음 입구 쪽부터 해서 84m.

○ 000 위원

지금 저 부분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림을 잘못 보여주셨네. 이만큼 이번에 하시는 거고 앞으로 저렇게 하신다는 거죠.

○ 000 위원

그렇죠. 저쪽도 해야 하는 부분이죠.

○ 000 위원

지금 빨간 부분은 앞으로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 000 위원장

빨간 부분은 멧돼지 이동로.

○ 000 위원

이동로인데 그쪽으로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 문화재 설계자

여기는 이동 경로고요. 되어야 할 부분은 여기 파란 줄 쳐 있는 부분입니다.

○ 000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구청 등 관계자 퇴장)

그다음에 도봉서원입니까?

○ 000 주무관

그러면 회의 자료 맨 마지막에 있는 도봉서원과 각석군 추가 발굴조사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도봉구청 등 관계자 입장)

○ 문화재 조사자

안녕하십니까? 도봉서원 보존·정비를 위한 추가 발굴조사를 담당하는 ○○문화재연구소 ○○○입니다. 지난 2018년 조사한 결과를 간략한 PPT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많은데 시간도 없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봉서원과 영국사는 크게 영국사기와 도봉서원기 그리고 복원기를 지나서 복원을 위한 여러 학술조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2014년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에서 도봉서원 복원 심의 결과, 복원사업의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중단 사유는 발굴된 건물지가 도봉서원임을 명확하게 밝힐 근거가 없고 조사 이유가 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일단 복원 사업은 중단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하층의 영국사에 대한 보다 많은 발굴조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는데 2012년도 발굴했던 중요 청동불구 때문에 진행이 됐고요. 서거정의 도봉산 영국사라는 시에는 탑이 남아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이이의 도봉서원기에서 영국사 옛터에 도봉서원을 세웠다고 명문에 나와 있습니다.

도봉서원과 영국사에 대해서는 금석문과 문헌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지역에 고려시대 태조 때 견주라는 것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도봉서원 영국사 해거국사비가 발견되면서 견주라는 지명이 나와서 이 시기임을 명확히 확인했고요. 그 외의 것들은 고서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것은 심사정의 그림과 정선의 그림이 전당후재, 강당과 동서재의 위치 때문에 배치에 차이가 있는 거였는데 지난 학술조사를 통해서 정선의 그림에서 서재로 추정했던 그림이 밑에 보시면 누상으로 돼 있습니다. 누상의 건물지기 때문에 심사정의 그림에 있는 성심루와 같은, 그래서 정선의 그림에서는 동재와 서재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파

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림의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 유적의 전체 원경이고요. 유적 전체에 있었던 석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조사에서 쌓아놓은 흙까지 다 채진을 해서 약 230여 점의 석부재들과 여러 비편들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영국사에서부터 서원 철폐까지 7층위를 확인했구요. 조사 결과로는 석축 3기와 배면석축 2기 그리고 담장 석렬 2기와 석렬 1기, 그리고 중심 배수로를 주변으로 해서 있는 11기의 배수로, 건물지 16동 그리고 영국사와 도봉서원의 전환을 알려주는 탐지, 석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아까 보셨던 석축입니다. 2017년에 조사했던 석축이고요. 석축 하부로 여러 시설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시설인 담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건 2017년 조사 결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층 기단 3개 층을 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호 건물지에서는 선당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매립토에서 건칠불이 현재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당으로 추정되는 10호, 12호 건물지와 앞에 행랑으로 추정되는 대형의 14호 건물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발굴조사에서 11호 건물지라고 했던 띄워져 있는 건물지와 5호 건물지 앞쪽에 있는 직교하는 담장렬을 확인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1970년대 복원했던 도봉서원 건물지와 배치 구조, 층위를 확인한 결과 근대 건물지는 아니고 가장 도봉서원 훼손되는 그 단계의 터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건물의 담장으로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아까 탐지는 자연암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탐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윤순거가 1630년 도봉서원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불적이 있어서 이 불적 가운데에 흙을 내서 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석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강당에서 내려다보니 비가 오는 날 비가 얇게 고여서 보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이게 마침 비가 오는 날입니다. 물론 주변이 깨져서 많은 물이 고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형태로, 석지로 전환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운데 노랗게 변색돼 있거나 이런 것들로 봐서 물에 의한 흔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조사됐던 해거국사비와 더불어 한 편이 더 확인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알려졌던 사실과 함께 50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많은 고승비문의 배열로 보서는 아마도 법랍 오십 몇 세가 됐을 때 입적을 하신 신정선사의 입적 나이를 대략 추정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묘법연화경을 새긴 석경들이 6권을 제외한 1권에서부터 7권이 다 나왔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건칠불상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현재 사찰에서 20여구 정도만 봉안이 되어 있는 건칠불상입니다. 일부 지금 단면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놓여 있거나 옆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5겹에서 6겹 정도의 섬유층 위에 회칠층이 있고요. 그 위에 금박이 씌워져 있는 건칠불상입니다. 발굴조사에서는 처음 확인이 됐고요. 아직 수습조사를 못 하고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8년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유물 전시를 하면서 ‘계림공시’라는, 속종이 왕자 시절에 받았던 칭호인 ‘계림공시’가 새겨진 청동굽다리 안에서 명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077년에서 1095년 사이에 시주했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전기까지의 다양한 유물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확인했던 것은 확실한 통일신라시대 기단과 동 시기의 유물들이 산포해 있는 점으로 봐서 이 시기에 적어도 유구를 뒤편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거국사 시기가 되면 고려 전기에 긴 석축 기단이 만들어지고요. 그것과 직교하는, 정확하게 90도가 일치하고 있는 배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건물지와 기단 그리고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해무리굽 청자라든지 AMS 연대 등을 통해서 이런 배치 구조를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계림공이 시주했던 시기는 아마 그 이후에 건물지가 명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효령대군이 중창을 하면서는 주 불전 좌우 동서 상실 앞쪽으로 선당과 승당을 갖추고 아까 말씀드린 긴 14호의 행랑 건물지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한 배치는 정인사라든지 상원사, 이런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진관사라든지 보성 개흥사지의 건물 배치 구조를 통해서도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봉서원 11호 건물지는 이 검은색이 1970년대 마지막 복원했던 사우 건물입니다. 그 사우 유도문과 같은 곳에 공간이 비워져 있고 층위도 보다 아래에 있어서 훼손 직전 도봉서원의 담장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층에 있는 1호 건물지와 담장을 사우로 추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우 건물지와 이 탐지가 석지로 전용이 돼서 도봉서원의 입구에 있었고 강당과 계개당 사이에 있었다

는 석지를 근거로 해서 적어도 강당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탐방로로 되어 있는 이쪽 부근에 침류당이라고 하는 중요한 건물지, 아마 이 건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심루라고 하는 건물지가 탐방로 상에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 시설들은 아까 보셨던 석축 하부에 이렇게 있어서 전당후재형의 배치를 가지고 있는 도봉서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학술자문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자문회의 결과, 배면 석축과 보호수 일대에 대한 발굴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230여 점의 석부재에 대한 정밀 기록 그리고 건칠불상에 대한 중요한, 즉 영국사와 도봉서원의 접점이기 때문에 수습조사와 세심한 주변 조사가 필요하며 보존 처리에서도 다양한 복원을 고려한 분석과 촬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사 성과는 아까 보신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간략하게 보신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7일 이러한 조사 성과를 가지고 고고학적인 성과와 건축사적, 미술사적, 금석학적, 역사학적, 역사지리학 적 그리고 보존 정비.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학술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역시 아까 영국사지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것은 조선시대 영국사 이전에 계림공 시기부터 그 이전이 탐비전 이라든지 그런 작은 영역에서부터 영국사로 확장된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과제로 남게 됐고요. 도봉서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봉서원임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치를 발굴하고 난 뒤에 보존 활용 하는 것이 좋으며 사적과 문화재 지정으로의 추진 그리고 보존 정비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의 참여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성과를 통해서 과제는 현재 유적을 복토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많은 양의 흙을 적토해 놓았기 때문에 유적을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복토 방법도 달라질 거고요. 거기에 따른 향후 유적 보존 정비 활용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급하게는 건칠불상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임시로 포장만 덮어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국립문화재보존센터라든지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부장님이라든지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보셨는데 쉽게 조사, 수습을 하시겠다고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

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대학교라든지 여러 군데에 다방면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보존처리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주변도 같이해서 세심한 조사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000 위원

지금 그러면 발굴이 끝났어요?

○ 문화재 조사자

현재 이번 추가 조사로 허가받은 기간과 범위에 대해서 조사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 000 위원

불상을 덮어놓고 끝나면 그거는 어떻게 되죠?

○ 도봉구청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6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그중에서 복토 비용과 건칠불 수습 비용, 그다음에 정비 계획 방안 등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진 상으로는 잘 안 나왔는데 저희가 작년 하절기 때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그때 기존에 있던 물길도 변형이 되면서 유구 쪽을 많이 쓸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에 있는 배면 석축 부분에 대한 석축 부분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해서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3억 5,000만 원은 확보했는데 그중에서 2억 5000만 원을 그쪽에.

- 도봉구청  
아니요, 총 6억 원을 확보했는데.
- 000 위원장  
합쳐서 6억. 네.
- 도봉구청  
네, 합쳐서 6억입니다.
- 000 위원  
건칠불 크기가 얼마나 해요?
- 문화재 조사자  
건칠불은 현재 폭은 한 60cm 정도 되고요. 길이는 90cm 정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시기가 대강 언제쯤 되나요?
- 문화재 조사자  
건칠불은 현재까지 가장 빠른 것은 해인사에 있는 게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고려 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대부분이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언제쯤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 문화재 조사자  
현재 6호 건물지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로 보면 적어도 영국사 폐사 시점에 이게 매립이 됐고 그럼 이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조선 전기 이전에 조성된 건칠불로 추정이 됩니다.
- 000 위원

전기 이전. 상한선 어디까지 봅니까?

- 문화재 조사자  
상한은 현재까지 나온 것은 고려 후기에서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칠의 칠기는 AMS 연대라든지 이런,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대 폭도 좁아서 발굴조사를 통해서 유적에 대한 연대도 확인할 수 있고 불상에 대한 조성,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현재 도봉서원 발굴 조사는 이거로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추가 발굴했는데 다시 더 발굴할 계획이 지금 여기는.
- 도봉구청  
아니요. 우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발굴을 했을 경우에 지반이 많이 약화돼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적으로는 복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발굴은 여기서 일단 중단하고.
- 000 위원  
복토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영국사 사역은 다 확인이 됐어요?
- 도봉구청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 최종보고회 때 나왔던 이야기로는 지금 영국사에 대한 발굴조사 지역이 영국사라고는 명칭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옛 영국사의 본사가 아닌 지원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영국사 사역을 말씀하신 거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 발굴조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일 가능성도 높아서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평면도에서 동서남북으로 확장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확인이 된 거죠? 더 없든지, 이래야지 끝나는 거지 지금 이게 기념물이고 나중에 더 지정하려고 해도 범위가 명확해야 하는데 저건 지금 보니까 조사 범위를 자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요, 더 있는데.

○ 도봉구청

지금 도면상으로는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범위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위 자체로는 제가 저희 최종보고회 때 위원 분들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중심 사역 부분은 다 발굴조사가 끝났다고 판단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말씀하시기로는 더 이상의 추가 발굴 조사는 조금 무의미하지 않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다 발굴된 것은 아니고 중심 부분만 발굴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추가 발굴할 여력이라든가 여건이 어려우니까 일단 여기서 복토 정리 작업으로 들어가자, 그런 의견인 거죠?

○ 도봉구청

네.

○ 000 위원장

영역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건 추후의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 문화재 조사자

건칠불상과 수습 조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추가적으로 보시면 뒷부분, 이쪽이 아까 말씀드린 수해 때문에 무너진 석축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하층 기단들이 있어서 하층 기단이 이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해 때문에 마침 여기 트렌치처럼 난 이쪽에서도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혀 있고 층이 두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석축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조사는 수반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느티나무 주변으로는 마지막 범위 내에서 도봉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은 이쪽 구간이 됩니다. 이쪽 구간과 여기 아래 탐방로 구간 그리고 이쪽 추가 조사라고 하는 이쪽 부분은 석축 하부에서도 나왔던 이런 시설들이 도봉서원의 지원 시설이 또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2013년 추가 시굴 때도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기 분포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현재 기념물의 전체 상황을 놓고 보면 추가적인 조사들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 000 위원

서로 다른 의견들이예요, 지금?

○ 000 위원

저는 세미나 참석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 문화재 조사자

세미나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복원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쪽 부분의 영역, 왜냐하면 이쪽에 탐지가 있는데 이 탐지가 비전지일 가능성도 있어서 헤거국사의 비전지로 작게 있다가 이게 조선시대에 영국사로 간 것인지, 그 영국사에 대한 역사성이 아직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최종보고회 때도 어느 정도 제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현 조사 단계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는 그만해도 좋다는 게 최종보고회 때의 의견이었고요.

○ 000 위원

지금 이 발굴 결과를 가지고 영국사를 복원하실 겁니까, 도봉서원을 복원하실 겁니까?

○ 도봉구청

애초에 저희가 이 발굴조사를 시작했던 목적 자체는 다들 아시겠지만 도봉서원 복원이고 2018년도 추가 발굴조사 했던 사유도 영국사와 도봉서원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있지만 2014년도에 불가 되었던 도봉서원의 배치 불명확성과 그다음에 정선과 심사정의 그림이 상이하다는.

○ 000 위원

이번 발굴을 통해서 도봉서원 배치는 확인됐다고 발표하셨잖아요. 그럼 발굴 목적은 다 달성하신 거 아니예요?

○ 도봉구청

네, 달성을 했습니다.

○ 도봉구청

그래서 3차 발굴을 거의 완료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도봉산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의 주 탐방로, 법정 탐방로를 지나는 길을 저희가 수해로 올해 유물이, 그래서 용역 기간에 작년 12월에 만료하려고 했지만 길어진 것도, 올해 6월까지인 것도 수해 피해 때문에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재해안전진단을 하면서 저희가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습도 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고 저 구간이 바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발굴도 발굴이지만 그에 대한 대처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제는 수습하는 문제가 제일 큰 것이죠.

○ 도봉구청

네. 유물 보존하고 수습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 예산 범위 내에 들어와 있고요. 그 대신 복토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피해를 입은 지역하고 같이 더불어서 해야 하고 그 피해 지역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차가 들어가려면 복토가 되어야 하는 게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복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영국사지를 마무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현재 도봉서원과의 관계에서는 끝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도봉구청

저희 사업명은 사실 도봉서원의 복원인데 확장자가 되게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부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희 구의 입장에서 조금 더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000 위원장

일단 마지막 여기 과제에 도봉서원 복원 방향 제시라고 했는데 도봉서원이 되는 건지 영국사가 될지 그런 정비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시점에서 수습하고 보존 처리, 복토. 그거를 올해에 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 000 위원

복토를 하면서 영국사지 터를 재발굴하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복토를 하면서라도 어디까지인지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한번 복토하고 나면 끝일 텐데 지금 구의 입장은 도봉서원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려시대 하는 분들은 반대 입장이에요. 영국사지 중요한 거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복토하기 전에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영국사지가 아래쪽으로 해서 어디까지 퍼지는지만 표시를 해 놓고 덮어놔야 하지 않을까요?

○ 도봉구청

영국사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가 부속 건물, 그러니까 옛날 대형 절 같은 데 위치라고 보면 너무 작다. 가람 위치나 이런 게 작기 때문에 사실 저희 도봉산 국립공원에 들어가게 되면 광륵사라는 절도 있고 국립생태탐방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즈음이 영국사의 본사가 되는 거지.

○ 000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통일신라 때부터의 유적이 확인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저기를 발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인지 표시라도 할 수는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 도봉구청

복토하면서요?

○ 000 위원

지금 정보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고려 때의 사지가 어디까지인지 지도로 그럴 수 있냐고요.

○ 문화재 조사자

이 북쪽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동쪽 부분도 현재 석축을 중심으로 중심이라고 파악이 되는 거고 하부 쪽에서, 시굴에서도 조선시대의 건물 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 000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돼요, 안 돼요?

○ 문화재 조사자

현재까지는 이쪽 부분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000 위원

발굴 허가받은 면적은 다 하신 거죠?

○ 문화재 조사자

네, 하기는 다 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앞으로의 복원 방향이 물론 이름을 도봉서원으로 했지만 앞으로 여기를 복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복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복원을 하지 않고 여기에 어떤 표시를 하고 이걸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해 놓을 거 아니에요, 복토를 해도. 그럴 때도 영국사지나 도봉서원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대립이 될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거나 비중이 더 낮은 게 없어요, 똑같이. 영국사는 지금 본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그 두 개의 가치가 병행적으로 표시되고 알려지고 보존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 도봉구청

위원장님, 제가 감히 송구하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구에서도 이 사업의 시작점은 2010년도에 도봉서원이 있던 서원 어르신들과 협의해서 도봉구와

뭔가를 해보려는, 처지도 협조하고 안 좋으니 다시 복원하자는 입장에서 했지만 저희가 문화재를 잘 모르고 건드렸던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다, 유교다 하기에는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을 연구해서 역사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은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서원에 있던 어르신들은 80세가 넘어서, 사실 지난주 일요일에도 춘향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짓고 안 짓고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원의 과정, 어떻게 해서 도봉서원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진짜 하루하루 고대하고 계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담당하고 저하고 맡은 지 1년도 안 됐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 복원을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 자리는 복토를 통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지만 도봉서원의 배치랑 영국사의 배치, 위원님들이 2014년도에 요구한 사항과 2017년에 주문하신 사항은 그래도 저희가 다 해결이 됐으니 이제는 복토도 하고 유교와 불교가 병행하는 이 지점에서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비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유생 어르신들도 이 지역에서 짓는지 못 짓는지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든 아니면 이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가 매장 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알고도 있고 그 과정에서는 보호를 하고 보존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다면, 여러분이 저희에게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그런 걸 한 번 더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그 가운데서는 이번에 저희 최종보고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를 구가 혼자 단행할 게 아니라 유교와 불교가 만나서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갈 수 있는 역사문화재 지역으로 남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000 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시급한 것은 도봉서원을 다시 만들어서 그 노인들에게...

○ 도봉구청

만들어서 빨리 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 자리는.

○ 도봉구청

그래도 10년은 기다려 주셨고요. 그분들은 안 돼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일의 진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저희 구의 바람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유교와 불교가 시대적인 측면이 있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조화롭게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마련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 도봉구청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이제 발굴은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3차년도 했으니, 그러니까 3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나아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다는.

○ 000 위원장

좋은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죠.

○ 000 위원

영국사지 관련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올 1년 더 마무리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서원이 마련되는 시대적 상황을 보면 사찰이 있는 곳에 서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서울에 사실 서원이 없지 않습니까? 도봉서원 외에는. 그런 면에서 서도 그렇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100년 가까이 지나가는 사이에 서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사실상 아픈 역사일 수도 있죠, 불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교들이 다 쫓겨 나가고 거기에 유생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이런 현장인데 그 부분들을 지방에 가면 몇 군데들이

있지만 여기 수도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 현상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결시켜서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을 하면 매우 좋을 것 같다. 유생이다, 승려다 이런 측면보다도 역사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 도봉구청

그러니까 그 사적의 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문화재청도 가보고 그러면 그 터에는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짓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종결을 하려면 발굴했더니 여기가 도봉서원 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사, 그 밑에 계속. 파면 팔수록, 대한민국 땅에서 파서 안 나오는 물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진실을 밝히겠다고 계속 찾는다는 것은 저는 무리수라고 생각하고 이제껏 찾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발굴을 했다면 시굴해서 발굴로 넘어가는 것처럼 발굴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수해 지역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주말에 저희 도봉산을 찾는 시민이 많습니다. 시민뿐만이 아니라 외국 관광객도 많은데 저렇게 펼쳐놓은 지가 지금 거의 8~9년이 넘습니다. 다들 의아해 하면서 쳐다보고 저게 뭐냐고 하는데, 우리 ○○○ 팀장님 맨날 뭔가를 붙여서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드러내놓기도 되게 어려운 입장이어서 ‘조금만, 조금만’ 하면서 제가 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게 어떤 터고 이거는 이로써 학문적으로 나타내야 하고 우리가 조사해서 후세에 알려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시작해서 한 사업은 도봉서원 복원이기 때문에 그 복원에 대한 정리는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정비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000 위원

영국사지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 000 위원장

그리고 그 주변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발굴된 성과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사진이라든가 간단한 설명을 붙여서 이렇게 패널 같은 거를 쪽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혹시 지금 되어 있나요?

○ 도봉구청

그건 이번에 이 결과가 떨어지고 나면 저희가.

○ 000 위원장

그런 것도 해놓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미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봉구청

고맙습니다.

(도봉구청 등 관계자 퇴장)

○ 000 위원

뭔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더 하자고 하는데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 000 위원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 000 위원

발굴이 아니라, 영국사 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면적만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도.

○ 000

그리고 9년, 10년 이것은 사실상 발굴에 있어서는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길어지면 더 길어질수록 해야 하는 거지 기간 정해놓고 그냥 문 닫아 버리나? 그건 아니잖아요.

○ 000 위원

계곡 부근이라서 거의 수해를 매년 겪다 보니까.

○ 000 위원

심각할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게 심각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비 많이 왔을 때 쓰러져 내리면 훼손이 되니까.

○ 000 위원장

우리가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영국사 범위라든가 그것을 좀 더 팔 필요가 있나요?

○ 000 위원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물지 발굴을 하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끝나지 대개 그 밑에까지 드러내서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발굴에서는.

○ 000 위원

그러니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 000 위원

완전히 없어지는 지역이 아니면 그냥 놔두죠.

○ 000 위원

그러니까 놔두는데 제 이야기는 발굴이 아니라 어디인지 범위 정도는 확인하고 복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 000 위원장

그건 파야 하잖아요, 어디인지 확인하려면.

○ 000 위원

그런데 허가된 범위를 다 봤다니 더 이상 요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 000 위원  
지금 발굴한 상태에서 영국사가 어느 정도의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제시를 해달라고.
- 000 위원  
아까 사진 봐서는 북쪽하고 남쪽, 동쪽으로 더 나간다는 건데.
- 000 위원장  
좀 더 확대될 것 같다는 의미인데, 그만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 000 위원  
새로운 허가를 또 받아야 하니까 구에서도 피로하다는 거죠.
- 000 위원  
이제 다 마무리하고 활용 방안 정도를 바라는 거잖아요.
- 000 위원장  
사실 발굴이라는 게 그렇게 끝까지 그거를 다 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어요. 남겨놓는 것이 좋으니까 그 정도로.
- 000 위원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정도로.
- 000 위원  
다만 이게 완료된 것은 아니고 아래에 영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 000 위원장  
그래서 이런 결과를 종합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걸 하나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냥 교육관 정도 조그마하게 해서 그동안 했던 부분들 이렇게 전시해 주고.
- 000 위원  
거기가 너무 좋아서요. 공간이 없어요.
- 000 위원장  
그 바로 옆이 아니더라도 약간 부지를 하나 마련해서 그거를 설명해서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그게 이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 000 위원  
파고라 같은 거, 그 정도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데는 되는데요.
- 000 위원장  
도봉구에 그런 여유 공간이, 자기네가 마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 000 위원  
그런 계획은 앞으로도 강구해 보라고, 이거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 000 위원장  
활용 계획을 마련해 보라고.
- 000 팀장  
활용 계획은 아마 또 올라올 겁니다. 지금은 결과 보고니까 저희는 접수만 일단 한 상황이고 향후 계속.
- 000 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 000 주무관

다음 것은 시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심의고요. 장충단비 보존 처리 관련 발표하시겠습니까.

(중구청 관계자 입장)

○ 문화재 설계자

안녕하십니까?

○ 000 위원장

담당자는 안 오셨나요?

○ 문화재 설계자

오늘 중구청의 담당자가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 000 위원장

원래 담당자가 같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하시는 분이 하셔야 하는데.

○ 문화재 설계자

저도 오는 길에 연락을 받아서요.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문화재는 장충단공원에 있는 장충단비입니다. 장충단비는 가로, 세로 40cm×80cm 규모의 비신이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연혁은 일제강점기 때 꼽힌 비를 1969년에 현재 위치 수표교의 서쪽에 옮겨 세운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존처리 공사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60일로 예정을 하고 사업은 1,500만 원입니다. 당초의 사업 지침은 장충단비 대석 박락 부분의 보존 처리가 필요하고 장충단비 비신과 앞에 있는 석물들인 장명등, 기타 비석에 대한 이끼 및 오염물질 그리고 화학약품 사용을 최소화할 것, 이런 두 가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장충단비의 공사 내용을 장충단비 박락된 부분에 대한 몰탈 제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수지성형복원 그리고 백화 오염물에 대한 백화 제거입니다. 그리고 앞에 석물들 중에 비석에 대한, 옥개석에 생성된 균열부에 대

한 수지 처리와 세척 부분이 있고요. 장명등 두 개에 대한 흑화 및 생물 오염 세척이 있습니다.

현황 사진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장충단비 비좌를 과거에 처리했던 몰탈 부분이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현황을 의뢰받고 예산을 신청했던 부분인데요. 들떠 있는 몰탈 부분을 다시 제거하고 저희가 문화재에 사용하는 석재용 수지를 사용해서 마감을 하고 지금 떨어지면서 앞에 석재 편이 약간 박락되거나 들떠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탈 부분을 제거하고 수지 처리하면서 앞의 석재 부분에 대한 접합도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장

미안하지만 잠깐 질문할게요. 지금 작년에 했던 부분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 발표자

아닙니다. 예전, 2012년도로 기록돼 있습니다.

○ 000 위원장

2012년?

○ 000 위원

7년 전.

○ 000 위원장

7년 전? 네, 말씀하세요.

○ 문화재 설계자

우측편의 사진은 하단부에 균열부 사이로 백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백화를 제거하고 균열부에 대한 수지 처리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몰탈 부분도 있고 옆에 석재 부분이 약간 들려 있는 모습입니다.

공원 앞에 장명등 2기와 작은 비석이 1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장충단비를 보존 처리하면서 표면 오염이 보존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

상이 돼서 비석 같은 경우는 상부 옥개석에 균열 부위가 확인했고 전체적으로 흑화 등 생물오염으로 피복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균열부 수치 처리 및 오염물 세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명등의 흑화 및 생물오염 현황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건식 및 습식 클리닝을 통해서 오염물을 제거하도록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으로 비신에 대한 간단한 일반 세척과 하단부에 대한 백화 제거, 그다음에 비좌에 대한 몰탈 제거 및 수치 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측면 사진이고요. 그리고 석물들 3기 중에 비석과 장명등 2기에 대한 표면 오염도에 대한 습식 세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 질문해 좀 주시죠.

○ 000 위원

장충단비의 대석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혹시 아세요? 지금 2007년에 보존했는데 지금 몇 년 만에.

○ 문화재 설계자

그때 세운 건 아니고 기록에 의하면 1895년 대석으로.

○ 000 위원

비석은 그런데 대석까지 있었을까요? 지금 문제는 대석이 지금 깨져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재 설계자

맞습니다. 대석에 대한 제작 기록은 정확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7년에 했다는 거죠?

○ 문화재 설계자

2012년도에 한 기록이 있습니다.

○ 000 위원

어쨌든 12년 만에 깨져서 또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연도를 조금 확인하셔서 이거는 어느 분이 하셔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석 자체를 바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000 위원

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 000 위원

이것도 복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무거운 돌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시방편으로 하고. 이 깨진 것을 어떻게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진 걸 복원하나요?

○ 000 위원

장충단비가 이전해 온 것 아니에요?

○ 문화재 설계자

1969년에 이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이전해 오면서 충격 받아서 깨진 것 같은데.

○ 000 위원

나중에 가면 충격 받아서 금이 가서 기본적으로 떨어져 나가겠는데.

○ 000 위원

이거는 조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1969년에 이전해 온 것인지, 1969년에 여기에 세우면서 대석을 만들었는지. 왜냐하면 비석만 있고 대석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1969년 거라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복원을 할 필요가 있나.

- 000 위원  
그러니까 1895년에 같이 만든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전하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가져와서 다시 세워놓는 과정에서 부딪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게 몰탈이 아니거든요, 돌이 깨진 거지. 몰탈 마감이 됐던 게 아니잖아요, 사진으로 볼 때.
- 000 위원  
금이 가니까 보강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 문화재 설계자  
지금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예전에 시멘트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공복부가 있었는지 그 위치에 12년도에 저희가 중구청에서 받은 자료로는 수지 처리라든가 그런 몰탈을 사용했던 부분이 다시 들뜬 것으로.
- 000 위원  
이 돌에는 수지해도 계속 이런 현상이 나서.
- 000 위원장  
2012년에 처리한 업체는 다른 업체인가요?
- 문화재 설계자  
네. 다른 업체입니다.
- 000 위원  
밑에도 금이 가 있잖아요.
- 000 위원  
가운데로 쪽 가 있잖아요. 양쪽 대각선으로 모퉁이 이렇게 금이 가 있는데.

- 000 위원  
이게 돌 처리한 것을 보면 1800년대에 한 것인지 1900년대에 한 것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 000 위원  
이건 1900년대 것 같이 보이는데.
- 000 위원  
건립 당시에도 그 정도는 만들어요.
- 000 위원  
각을 처리한 부분을 보면 기계로 했는지 손으로 했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만약에 기계 흔적이면 근래에 한 거고 손으로 한 거면 1800년대에 한 거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서...  
모줄임한 방식이 전통 것하고 같나? 이게 조금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 000 위원  
비석 모서리에서 비좌 모서리까지 쪽 금이 가 있어요, 양쪽으로. 이거는 자꾸 보존 처리한다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 000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1969년에 만약 만든 거라면 더 연구하셔야 해요. 이거는 석물 다루는 사람이 보면 금방 압니다. 알기 때문에.
- 000 위원  
그런데 이 비석 자체가 문화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이거 교체하기도 뭐한 거지.
- 000 위원  
같이 아닌가요, 문화재면?
- 000 위원

그러니까, 같이 문화재잖아요.

- 000 위원  
1800년대에 만들어졌으면 이것도 같이 문화재죠. 그런데 지금 1969년에 만들었다면.
- 000 위원  
그거를 확정할 수 없잖아요, 현재 이 자리에서.
- 000 위원  
이거는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그 외에 흑화 오염, 백화 오염, 그런 거에 대해서는.
- 000 위원  
장명등도 같이 지정돼 있나요?
- 문화재 설계자  
아닙니다.
- 000 팀장  
비하고 펜스 쳐진 부분까지만. 그게 아마 보호구역 라인.
- 문화재 설계자  
석비 1기만 지정돼 있습니다, 장충단비로.
- 000 위원  
장명등은 아니죠?
- 문화재 설계자  
네, 아닙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장명등까지 포함입니까?
- 문화재 설계자  
네.
- 000 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 000 위원  
화학물질을 최소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화학물질을 쓰신다는 이야기 네요?
- 문화재 설계자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하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만약에 클리닝을 할 경우에 산 종류의 화학약품을 쓰지 말라는 지침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존 처리할 때, 클리닝을 할 때는 거의 증류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쓰지 않습니다.
- 000 위원  
안 쓰시는 거죠? 최소화한다고 해서 쓰실 것처럼 이야기하셔서 확인을.
- 문화재 설계자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입니다. 만약에 이게 같은 시대에 제작됐다고 하면 저 몰탈 부분이.
- 000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보존처리를. 그렇지 않으면 바꿀 필요성, 이게 왜냐하면 몇 년 만에 계속 보존 처리를 해야 한다면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하겠다. 이거는 가서 석물 하는 사람 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1800년대에 만들어진 것인지 1960년대에 만들어진 것인지, 석물 다루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런데 기계로 했을 거예요.

○ 000 위원

하나만 여쭙볼게요. 수지 처리한 게 돌을 같이 먹고 들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처리 재료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들뜨거나 먹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쓰는 것은 이것과 재료가 다른가요?

○ 문화재 설계자

약간 다릅니다. 예전에는 에폭시 수지에 탈크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들뜨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황변 현상이라든가. 그런데 황변 현상은 이미 그런 것을 보완했고 최근에 쓰는 것은 미륵사지 석탑이라든가 문화재에 쓰는 것은 물론 수지 처리라든가 성형을 할 때 무기질 바인더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래서 들뜨는 현상이나 이런 게 현저히 적다든가 아니면 없다든가.

○ 문화재 설계자

그런 부분이 보완돼 있는 바인더고요. 개인적으로는 숙련도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지금 좌대 자체가 저렇게 중간에 금이 가 있잖아요.

○ 문화재 설계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000 위원

네, 보존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영구성이 있는 건가요?

○ 문화재 설계자

저희가 최근에 많이 봤는데, 영구적이라고 당연히 할 수는 없고요.

○ 000 위원

지금 10년 만에, 12년 만에 또 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 문화재 설계자

이런 표면 클리닝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5년에서 10년 정도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접근을 하고. 클리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다시 대기오염 돼서 흑화가 되고 주변이 습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지의류라든가 선대류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거를 아예 억제시키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산 종류라든가 화학약품을 써야 하는데 그거는 또 석재 표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000 위원

깨져서 균열된 부분을 처리하고 나면 어느 정도를 가냐는 거죠, 클리닝이 아니고.

○ 문화재 설계자

5년 정도 봅니다.

○ 000 위원

균열도 5년 정도예요?

○ 문화재 설계자

수지들은 수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그런 수분들이 계속 아주 조금 조금씩 침투하게 되면 벌어질 수가 있고.

○ 000 위원

그렇죠. 특히 겨울에 벌어지게 돼 있고. 무거운 돌이 누르고 있으니까.

○ 문화재 설계자

이렇게까지 들뜨거나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사업 같습니다.



- 000 위원  
돌을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 000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중구청 관계자 퇴장)
- 000 위원장  
우선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보수하는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 000 위원  
저 돌 값은 그 정도 안 나가요.
- 000 위원  
이 돌 못 구합니다. 요즘. 이 돌 못 구해요.
- 000 위원장  
담당자가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가서 현장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 000 위원  
5년 후에 또 해 줄 의향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조금 근본적인 걸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000 위원  
돌 자체를 지금 바꾼다면 이럴 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000 위원  
같이 만들어진 거면 바꿀 수가 없죠.

- 000 위원  
돌 자체가 문화재인 거죠.
- 000 위원장  
돌 자체가 문화재인지 아닌지도 지금 몰라.
- 000 위원  
이게 고종 때, 1897년에 됐으면 당연히 문화재죠. 그런데 이게 원래 비석만 있고 좌대는 새로 그냥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
- 000 위원  
왕령으로 만드는데 비좌 없이 어떻게 비석만 꽂아요?
- 000 위원장  
그러면 갖다 엮을 때 잘못해서.
- 000 위원  
이전하는 과정에서 깨진 거예요.
- 000 위원  
그거는 돌을 확인해 보면 금방 안다니까요. 이게 1800년대에 했는지 1900년대에 했는지는 보면 안다니까요.
- 000 위원장  
보류로 할까요? 아니면. 보류해야겠죠, 보류로 하고.
- 000  
한 번 현장점검 나가시죠.
- 000 위원장  
점검을 한 번 해보시면.

- 000 위원  
 석물 하는 분 한 분 데리고 가서 이거를 진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석물 하는 분이...
- 000 위원  
 석공은 금방 보면 알아요. 이게 기계로 했는지 손으로 했는지 이렇게 보면 바로 알죠. 기계로 돼 있으면 1900년대에 한 거고.
- 000 위원장  
 그런 분을 소개하셔서 우리 위원님 누구 한 분하고 같이 가서 판단을 하시고.
- 000 팀장.  
 추가 조사 후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 000 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 000 위원장  
 아까 도봉서원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 000 위원  
 보고만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 000 위원장  
 아무것도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나요?
- 000 위원  
 언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 000 위원장  
 그렇지만 복토한 후에 시민들에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권한다, 이렇게. 권하는 거죠, 우리가 뭐.
  - 000 팀장  
 활용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
  - 000 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마지막인가요, 이제?
  - 000 주무관  
 두 건이 지금 도봉구에서 같이 들어오셔서.
- (도봉구청 등 관계자 입장)
- 000 위원장  
 소개하시고 설명하시죠.
  - 도봉구청  
 안녕하세요? 오늘 심의 안건은 충정공 목서흙 묘역과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 신도비와 묘비 보존 처리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정공 목서흙 묘역은 신도비의 비신이 살짝 기울어져 있고요. 보존 처리가 필요할 정도의 오염이 돼서 그 건이고요. 두 번째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은 묘비가 오염이 돼서 보존 처리하는 건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00 위원장  
 설명하세요.
  - 문화재 설계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상은 충정공 목서흙 신도비입니다. 첫 번째 이 신도비는 지금 후면 방향으로 저희가 간이 측정을 했을 때 3, 4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도비에 대한 전체적인 보존 처리 부분

예산안을 신청했는데 이 기울어진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돼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간이 측정해봤더니 3~4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계획부터 말씀드리면 충청공 신도비의 예산이 1,100만 원이고 전주 이씨 묘비에 대한 부분이 400만 원으로 표면 보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도비 계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시공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지침이 있고요.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의 묘비는 신도비를 제외하고 앞에 있는 묘비의 풍화가 심각하니 그 묘비만 보존 처리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두 내용으로 충청공 신도비 기울기에 대해서 3D 스캔을 계측하고 이 계측을 통해서 기울어진 게 확인이 되면 신도비를 드잡이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표면 오염에 대한 세척을 하고 전주 이씨 묘비에 대해서는 오염도가 80%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보존 처리하는 건/습식 클리닝을 하고 포화된 상태에 대해서 암석 강화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공 목서흙 신도비의 현황 사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면부로 약 3~4도 정도 기울어진 것으로 저희는 간이 측정으로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흑화 및 생물 오염이 돼 있고요. 마지막 사진은 전주 이씨 영해군파 신도비 옆에 있는 묘소 앞에 있는 묘비입니다. 풍화 상태가 많이 심각해서 이번에 고려가 되었습니다.

신도비는 후면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3D 스캔 계측을 해서 자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지반의 박석을 해체하면서 신도비를 보양하고 전체적으로 드잡이 복원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흑화 된 표면 오염에 대해서 건식 및 습식 세척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주 이씨 신도비는 아직 흑화라든가 표면 오염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으나 옆에 있는 묘비 같은 경우가 흑화라든가 염상지리류, 생물 오염이, 피복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 클리닝을 통해서 보존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리닝 후에는 풍화된 석질에 대한 암석 강화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진입니다.

이것은 전주 이씨 영해공파 묘비의 표면 오염에 대한 세척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 000 위원  
흑화된 것을 걷어내면 어떤 색깔을 예상하세요?
- 문화재 설계자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원함의 상태는 갈색에서 회색빛이 나는 색깔입니다.
- 000 위원  
노란 게 대리석 아니에요?
- 문화재 설계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 000 위원  
재질이 대리석이라는 거죠? 화감암이 아니고?
- 문화재 설계자  
네,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는 비신 자체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 000 위원  
글자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 문화재 설계자  
그거는 현장에서 확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걷어내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 된다.
- 문화재 설계자

기단부는 화강암 재질.

○ 000 위원

대리석에 붙어 있는 이끼류를 화학적 처리하지 않고도 가능한 거죠?

○ 문화재 설계자

일단 저희가 건식 세척을 먼저 하는데요. 건식 세척을 대나무칼이라든가 죽침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엽상지의류라든가 고착지의류를 일차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증류수를 이용해서 브러시를 이용해서 습식 세척을 합니다. 그런데 녹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산화된 오염물들은 그런 방법으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묽은 염산이라든가 화학약품을 쓰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화학약품을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가 화학약품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지 않는 원칙으로 증류수 세척 정도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대리석류의 비석이나 석물에 유독 이끼류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상식적 차원에서 여쭙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면 얼마 이따 또 다시 그런 이끼류가 붙어 다니나요?

○ 문화재 설계자

저는 개인적으로 엽상지의류라든가 지의류들이 어떤 재질에 좀 더 많이 고착되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환경이 많이 좌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대리석이 많았던 것 같아요.

○ 000 위원

이전에는 한 적이 없나요?

○ 문화재 설계자

이 묘비에 한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묘비 옆에 있는 신도비가 원래 중심 대상이기 때문에.

○ 000 위원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 문화재 설계자

2014년도에 신도비는 보존 처리를 한 번, 세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자문을 하신 위원님께서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 옆에 있는 것 먼저 하자고.

○ 000 위원

신도비의 재질이 뭔가요? 이것도 대리석인가요?

○ 문화재 설계자

네, 대리암입니다.

○ 000 위원

대리석 비석은 화강암 대석을 씁니다.

○ 000 위원

그래서 이거 할 때 건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져나가면.

○ 문화재 설계자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 000 위원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되죠.

○ 문화재 설계자

네. 그래서 비신 할 때는 저희가 각자라든가 명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심하지 않다고 하면 비신은 특히 클리닝이나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기울기를 잡는 방법은 뭐예요?

○ 문화재 설계자

이거는 저희가 일단 지반부터 잡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반에 있는 박석 주변부 해체를 하고 신도비를 보양한 다음에 뉘여서, 그리고 나서 지반을 다시 잡으면서 세울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전통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밑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위에 얹느냐, 이 이야기예요.

○ 문화재 설계자

지금 지반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다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박석만 해체를 했다가.

○ 000 위원

그러니까 비좌 하부에 기초를 보강하거나 그런 건 안 잡고 있는 거네요.

○ 문화재 설계자

아직 그거는 드러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럼 비신이 기울어진 것은 확인이 쉬운데 비좌 자체도 같이 침하가 있거나 그런 거는 확인이 안 되나요?

○ 문화재 설계자

지금 상태로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런 것들이 3D 스캔을 통해서 계측을 하면 비좌와 비신의 상관관계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충정공 신도비가 기울어졌다는 것은 작년인가 제작년에 조사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를 말하자면 권고했던,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질문 있으면 하시죠.

○ 000 위원

없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니고 좀 전에 장충단비 그것도.

○ 문화재 설계자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같은 업체에서 만드셨네요.

○ 000 위원장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 문화재 설계자

수고하셨습니다.

(도봉구청 등 관계자 퇴장)

○ 000 위원장

도봉구에서는 저렇게 담당자가 오는데 중구에서는 바쁘다고 안 오고, 그렇게 된 거네요. 담당자가 오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 오늘 정해진 것은 다 접수한 것이고 장충단비는 보류.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